

목포대, 450억 산학융합 캠퍼스 짓는다

지경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최종 선정 대불산단내 4개 학과·기술교육센터 등이전

전남도는 대불산단 산학융합지구 컨소시엄이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2012년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내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연구개발

발-인력양성-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근로자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근로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지경부에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목포대·영암군·현대삼호중공업 등과 함께 대불산단의 기업 지원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65개 산·학·관을 참여시켜 지난해부터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유치에 추진해 왔다.

대불산단 내 조선 관련 중소기업은 전체 입주 기업의 72%인 208개사로 대불산단 총 생산액의 67.5%, 총 고용의 88.3%를 차지하고 있다.

산학융합지구 유치로 5년간 총 450억을 들여 대불산단 내 1만3000㎡ 부지에 대학 캠퍼스를 조성해 목포대의 조선·해양시스템·기계·신소재 등 4개 학과와 중형 조선산업 지역혁신센터, 첨단기술교육센터 등을 이전할 계획이다.

또 산학융합센터와 기업연구관을 마련해 산업단지 내에서 근로자 평생교육, 장비지원, 전문인력 개발, 산학공동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학융합센터에서는 근로자의 학위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으로 연계되는 고교생 및 전문대 졸업자의 취업 인턴제, 산학공동 연구개발 활동의 정규 과정화 등 선취업-후진학 과정, 현장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청년실업과 대학 진학 문제를 함께 풀어 해소하게 된다.

전남도는 산학융합지구를 과학기술진흥협력센터, 해양레저장비산업

지원센터 인근에 조성해 각종 연구개발기관을 집중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주요 공모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 한다는 방침이다.

송경일 전남도 경제통상과장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유치 성공을 계기로 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산·학·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대형 연구개발사업은 물론 각종 기업 지원사업 유치에도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해풍 맞고 자란 건강쌀 사세요”

고흥 녹동농협 '사슴골 해풍미' 출시

고흥 녹동농협은 최근 쌀 브랜드인 '사슴골 해풍미' 출시 기념행사를 가졌다.

녹동농협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직원과 주민 등으로부터 26개의 브랜드명을 공모받아 브랜드명을 '사슴골 해풍미'로 확정하고, 특히 청에 상표등록을 마쳤다.

양수원 조합장은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한 원료곡을 활용, 자체도정해 브랜드화함으로써 쌀의 새로운 이

미지 제고는 물론 매출증대를 꾀했다"며 "브랜드명에 걸맞게 소비자로부터 입맛으로 사랑받은 양질의 제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슴골 해풍미는 40kg(9만원), 20kg(4만6000원), 10kg(2만5000원), 5kg(1만3000원) 등으로 포장돼 하나마트 등 전국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u@

박준영 지사 강진 방문 군민과의 대화

“강진 문화유산, 지역발전 동력”

“강진은 우수한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 등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해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4일 강진을 방문, 군민과의 대화에서 강진의 풍부한 자원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지사는 “강진은 기업친화적 환경조성, 전국단위의 스포츠 대회 유치, 친환경 농수산물의 마케팅 등 비교우위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군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강진 건설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지사는 이어 “농업은 생명산업으로 절대 포기해서는 안된다”면서 “전남도가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자 도민들이 믿고 따라 성과를 이뤄냈듯이 가공과 유통에 대해서도 함께 한다면 강진은 희망의 땅, 자랑스런 땅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군민들은 이 자리에서 생

태형 동물체험 관광농원 조성비(10억원) 지원과 강진 원장마을-남미리사 연결도로 개설(8억원), 주작산 가족 산림휴양 관광단지 조성(10억원)을 위한 도비 지원을 건의했다.

군민들은 마량-제주항 노선 여객선 운항을 위한 사업면허 추진과 만덕·사내 간척지 쌀 소득보전직불 보조금 지급 등을 전남도에 요청했다.

전남도는 “생태형 동물체험 관광농원 조성은 군이 축산연구소와 협의회 가족체험영양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예산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연결도로 개설 역시 관광객이 몰려와 교통량이 증가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어 주작산 가족 산림휴양 관광단지 조성의 경우 타당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오디 수확 분주

담양군 용면 들녘에서 뽕나무 열매인 오디 수확이 한창이다. 오디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들어있어 노화방지는 물론 시력개선 효과가 탁월해 기능성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담양군 제공)

나주배 수출전문단지 육성

시, 5억 투입...140ha 과수원 대상지 선정

나주시가 배를 수출용과 국내 판매용으로 분리, 맞춤 생산을 통해 명성확보와 수출 확대 및 농가 소득증가에 나섰다.

4일 나주시에 따르면 미국과 EU와의 FTA 발효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나주시, 나주배 원예농협, 거점APC, 전남배 수출연구사업단 등과 산·학·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나주배 수출전문단지 육성 및 계약출하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4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전남배 배수출연구사업단과 나주배 원예농협 합동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의 과수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쳐 수출전문단지 입지 기준에 적합한 138농가 140ha의 과수원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수출 전문단지에서는 국제 우수농산물 관리인증(Global GAP) 기준에

맞게 배를 생산해 중소과(中小果)는 미국 시장에 수출하고, 대과(大果)는 대만에 수출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출전문단지에서 생산된 배는 나주배 원예농협과 나주시 조합 공동사업법인(APC)에서 전량 수탁 판매해 생산농가가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어 농가 소득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위규계 소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지난해 수출전문단지에서 1094t의 배를 수출했다”며 “해외시장 및 수입 농산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배 품질을 향상시키고, 수출 전문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송영철 기자 ycon@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지난해 축제 평가보고회에서 효과가 미흡했던 강진 홍보관 운영, 강진만 관광 선상체험, 조선민화 문패제작 체험 등 23종의 프로그램은 폐지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진청자 교류와 소통 특별전, 대한민국 현대청자 특별전 등 기획행사 19종 ▲대형청자 상징물 설치, 꽃등산 명품 포토존 조성 등 전시행사 10종 ▲평양예술단 및 중국 기예단 공연 등 공연행사 10종 ▲화목가마 불피피기 체험, 청자지압 타일체험, 다테피쉬 체험 등 체험행사 27종 ▲물놀이체험장 운영, 전국 실버댄스 체조 경연대회 등 부대행사 31종의 단위행사로 구성된 세부실행 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특히 이번 축제는 관광객 청자 일일교실 운영, 화목가마 불 피기 체험, 한국 현대청자 특별전, 경기도 광주 왕실백자 특별교류전 등 19종의

강진 청자골은 지금 축제 모드

추진위 100개 세부 프로그램 확정

오는 7월말 개막하는 '제40회 강진 청자축제' 프로그램이 확정됐다.

강진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는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 청자축제 세부추진 회의를 갖고 100개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진청자 교류와 소통 특별전, 대한민국 현대청자 특별전 등 기획행사 19종 ▲대형청자 상징물 설치, 꽃등산 명품 포토존 조성 등 전시행사 10종 ▲평양예술단 및 중국 기예단 공연 등 공연행사 10종 ▲화목가마 불피피기 체험, 청자지압 타일체험, 다테피쉬 체험 등 체험행사 27종 ▲물놀이체험장 운영, 전국 실버댄스 체조 경연대회 등 부대행사 31종의 단위행사로 구성된 세부실행 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특히 이번 축제는 관광객 청자 일일교실 운영, 화목가마 불 피기 체험, 한국 현대청자 특별전, 경기도 광주 왕실백자 특별교류전 등 19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지난해 축제 평가보고회에서 효과가 미흡했던 강진 홍보관 운영, 강진만 관광 선상체험, 조선민화 문패제작 체험 등 23종의 프로그램은 폐지했다.

또 타 축제와 차별화되는 야간공연 전라를 수립해 인기연예인 공연 및 일반 문화공연,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한마당 공연으로 구분해 재미난 볼거리를 마련했다.

강진군 축제팀장은 “올해 강진 청자축제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합심해 남은 기간 동안 분야별 계획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강진 청자축제는 '휴, 불그리고 인간'을 주제로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대구면 고려청자 도요지 일원에서 열린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농어촌공 18개 지사장 경영전략회의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행운)는 4일 본부 회의실에서 18개 지사장 및 내근팀장 등 관계직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전략회의를 가졌다.

이날 전략회의는 2012년도 경영목표 달성과 선제적 미래대응을 위해 각 지사장 업무추진 실적과 현황을 검토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 업무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대한불교조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철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 및 친족, 이웃간의 상충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사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골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송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사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정례회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도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인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전 남 영 암

하누리병원 경매물건

- 사건번호 : 2010타경 19601(물건번호 1)
- 입찰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01호 법정
- 법원최초 입찰가 : 9,518,275,000원
- 부동산위치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42-7외 1필지 (전남방직 입구대rob으로 접근성이 용이)
- 물건종별 : 의료시설
- 토지면적 : 9,517㎡
- 건물면적 : 7,305.36㎡(지하 1층, 지상 3층)

구분	입찰기일	최저경매가격	결과
1차	2012. 04. 30	9,518,275,000원	유찰
2차	2012. 06. 11	6,662,793,000원	
3차	2012. 07. 23	5,330,234,000원	

■ 2010년 신축건물 상태 매우 양호

문의 :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강훈열 국장 H.P : 010-2498-0420